

“운전기사 인권보호, 안전운전의 시작입니다”

광주시 3월부터 시내버스 10개사 임원 등 2360명 인권교육 불만 사례 토론·해법 제시 등... 서비스·안전성 향상 도모

“회사에서 운전기사님들께 육살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시내버스가 난폭해질 수 있어요.”

“기사님, 승강장 한 번 더 살펴주세요. 버스가 지나치는 바람에 휠체어 탄 장애인 한 시간을 눈비 맞고 기다렸습니다.”

광주시가 인권단체, 시내버스 업체, 노조와 손잡고 시내버스 임직원·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진한다.

서비스 평가에 따라 회사별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등 ‘당근책’에도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탑승객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운전기사의 인권 보호는 버스 친절도·안전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발상의 전환이, 불친절 등으로 낙인된 시민의 불만을

잡재울 수 있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운전기사, 임직원 등 전체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0개 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 2300여명, 정비직 직원 130여명, 관리직 180명, 임원 20명이 인권교육 대상이다.

운전기사에 대한 인권교육은 광주교통문화센터가 진행하는 정기 교육시간을 활용하고, 정비직·관리직 직원과 임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 감사 등 인권단체가 업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광주시는 매년 수백여명의 시민 제고를 들여 운영하는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고객 불만 접수가 줄지 않아 고심하던 중 기존의 주입식 친절 교육과는 다른 인권

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운전기사의 시각으로 본 시내버스와 인권과 장애인(승객)의 시각으로 본 시내버스와 인권이 바로 그것이다.

버스회사 내부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통해 회사 모를 운전기사의 인권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내버스 친절도와 안전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운전기사, 정비직, 관리직을 모두 회사에서 행복해야 안전하고 친절할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운전기사가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총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아 승객에게 불친절, 난폭운전,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결국 그 피해는 회사 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인권 보장은 업체와 운전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라는 게 광주시

판단이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인권 감사가 기본적인 인권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실제 있었던 승객 불만 사례를 제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승강장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버스가 지나쳐 한 시간을 눈비 맞고 기다렸던 승객, 운전기사의 난폭운전에 마음 졸인 시민의 입장으로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과정과 방법부터 ‘인권적’이어야하는 만큼 교육 이수율 평가 등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권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리고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린다면 결과적으로 시민과 버스업체, 운전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 ‘6m 소녀상’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위안부 굴욕함의 전면 무효화 촉구 시민문화제’ 무대에 설치 미술 작가 이성웅씨가 제작한 6m 높이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광주지역 예술인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모두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날 설치된 대형 소녀상은 삼일절인 3월1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질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

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감사 착수

전국 시·도교육감 “국가가 책임져야”성명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광주·경기·전북·강원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방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

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공익감사 청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하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감사가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일선 교육청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서울·경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누리과정 공약파기. 무너지는 아이들의 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정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시·도 교육감, 오늘부터 청와대앞 릴레이 1인시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4일부터 매일 오전 1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전국 10개 교육감들은 이날 서울교육청

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뒤 공동 행동 방안의 하나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5일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5일로 예정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해질 18:03
달출 03:23 달짐 14:00

날씨 풀러요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광주	맑음	-3/7	보성	맑음	-4/5
목포	맑음	-1/6	순천	맑음	-2/6
여수	맑음	-1/5	영광	맑음	-6/6
나주	맑음	-6/7	진도	맑음	-1/7
완도	맑음	0/7	전주	맑음	-3/6
구례	맑음	-6/5	군산	맑음	-4/6
강진	맑음	-2/7	남원	맑음	-6/6
해남	맑음	-3/7	축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6/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부	앞바다	북서~서	0.5~1.0	북서~서	0.5~1.0
	면바다(동)	북서~서	0.5~1.5	북서~서	0.5~1.5
서부	면바다(서)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생활지수

- 체감온도: 관심
- 동파: 낮음
-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32	03:20
여수	22:34	16:44
	06:27	12:27
	18:10	00:00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	☀	☀	☀	☀	☀	☀
-2/5	-3/3	-4/5	-2/7	-1/9	-1/10	3/12

시립 망월묘지 분묘, 근교 주민도 이용

광주시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 주민에 분양

광주 인근 전남 5개 시·군 주민들도 광주 시립 망월묘지 분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를 포함해 ‘행복생활권’으로 명명한 전남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등의 시·군 주민에게 망월묘지 공원에 조성되는 89용 가족분묘 평장 분묘를 분양한다.

그동안 전남 등 다른 지역민의 경우 광주 시립 공원묘지의 화장·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분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방은 국비를 지원받아 ‘행복생활권 89용 가족분묘 평장분묘’ 1800기를 조성한데 따른 것이다.

분양은 공급 공고일 현재 광주와 5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치 대상은 민법상 가족이 된다.

분양 신청은 오는 19~20일 망월묘지 공원 관리사무소(062-266-8170)에서 접수한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도 시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접수 인원이 미달되면 2월부터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안치(봉안)일로부터 60년이며 1기당 분양료는 사용료와 설치비, 60년간 관리비를 포함해서 221만 4000원이다.

/최권일기자 cki@

‘지카 바이러스’ 전염 모기 국내서 2년새 6.8배 증가

‘지카(Zika)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흰줄숲모기가 국내에서 2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권역 22곳의 감시센터에서 채집된 흰줄숲모기는 하루 평균 482.7마리로, 2013년(71.5마리)의 6.8배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모기 발생 현황 등을 감시하고 있다. 보통 4~10월 사이에 월 2회 채집 내용을 확인한다.

전체 모기 가운데 흰줄숲모기의 발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채집된 흰줄숲모기 비율은 2013년 0.4%(71.5마리)에서 2014년 2.1%(356.2마리), 2015년 3.4%(482.7마리)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전체 모기가 평균 1만7964.8마리에서 1만4382마리로 준 것과 대비된다.

/연합뉴스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